건축계 소식

建築士銓衡合格者발표
특별·일반 176명합격

지난 10월 16일 시행한 건축사자격 제2차 및 특별전형시험 결과 최종합격자가 밝혀졌다.

건설부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합격자 가운데 특별전형 시험에서는 모두 45명이 합격했다.

한편 건축사자격 일반전형시험 최종합격자는 모두 131명으로, 건설부는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면허수첩은 오는 20일까지 개별통보한다고 밝혔다.

특별전형시험에서 합격한 본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임봉수회원(대구지부) △박종문회원(서울지부) △송길환(경북지부) △강희용(서울지부)

建築資材展示会 개최
53개 업체 참가

건설부는 제5회 건축자재 전시회를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의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 국민과 建築業에 종사하는 자들이 좋은 建築資材를 選別할 수 있는 眼目을 갖도록 하고, 工学徒들에게는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자재를 소개하여 우수한 자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부문별로 자재를 전시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53개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참여했는데 부문별로는 ▲構造材部門 6개사를 비롯하여 ▲窓戶材 8개사 ▲防水 및 斷熱材 9개사 ▲冷煖房 기자재 7개사 ▲內外裝材 10개사 ▲급수·위생설비재 10개사 ▲전기설비재 3개사 등이다.

空間学生建築展 개막

건축학도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들간의 적극적인 작품을 통한 交流의 場을 제공하여 내일의 韓国建築界에 뜻있는 밑거름을 조성하고자 주·공간연구소(대표·金壽根)가 마련한 제7회 공간학생건축전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원서동 소재 공간미술관에서 개막되었다.

秋季学術발표회 가져
건축학회 論文集등 発刊

대한건축학회는 지난달 29일 건국대교양학관에서 83년도 추계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특별강연과 일반학술논문발표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위한 연회도 열렸다.

특별강연 제1분과(건축 및 도시 계획)에서는 안영배(서울시립대) 교수의 "미국의 건축교육방식에 대하여"를 비롯해서, 서상우(국민대) 김 균(충북대) 김광현(서울시립대) 유 완(연세대)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한편 제2분과(건축환경 및 에너지)에서는 이창갑(충남대) 교수의 "환경소음의 평가와 차음설계 시스템화에 대하여" 외에 일본 대림조 기술연구소의 田中辰明씨의 "건물의 에너지절약기술"과 박상동·유현형(동력자원연구소)씨 이종호(동력자원연구소)씨 김홍곤(충북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3분과(구조 및 시공)에서는 신현식(중앙대) 권택진(성균관대) 仕入豊和(일본동경공대) 김희구(홍익대) 김영문(전북대)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그밖에 일반학술논문발표는 계획분야 Ⅰ·Ⅱ(계획, 건축사, 계획방법, 환경, 도시계획)와 구조시공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모두 28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발표된 논문과 특별강연을 각각 모아 두권의 책으로 엮었다.

건축물造景기준 강화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위해

도심재개발지구내의 건축물 조경기준이 대폭강화 됐다.

서울시는 도심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키 위해 재개발지구 옥외주차장

제2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회 주최

□ 건축대전 개막첫날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회장:李丞雨)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서 두번째 맞는 이번 건축대전은 초대작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개막일에는 이 진의 문공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지태 본회 회장 등, 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특히 일반공모전의 입상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초대작가전에는 54명의 회원이 56개 작품을 내놓아 예년에 비해 왕성한 작품현황을 보여 주었으며 일반공모전에서는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계획으로 응모한 朴沆燮·李正旭·朴德植의 작품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건축대전 행사 중에는 건축가축제로서 가협회상 전시회와 건설업체 전시회가 있었으며 10월 22일 오후 1시에는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건축강연 및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최 창규씨의 〈현·근대의 사회상황과 건축양식〉 및 장 기인씨의 〈현대건축의 한국적 초상〉, 그리고 〈한국적인 건축표현성〉이라는 주제로 이 호진씨의 발표가 각각 있었다.

기준면적의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대신 남는 대지공간을 도심소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지의 25%이상을 차지했던 옥외주차장이 15%로 줄어들고 대신 조경면적이 옥상을 포함, 대지면적의 1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 조치로 지하주차장의 공간이 좁을경우 지하주차장을 2층화하여 해결토록 했다.

시는 확보된 녹지공간을 벤치 음료수대 공중전화 및 신체장애자 편의시설등을 갖춘 시민휴식처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 건물의 외양을 살리기 위해 건물형태가 동일한 경우라도 외장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축건물 옥상에 지저분한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옥상 조경을 강화, 건물출입자들의 휴식장소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이 조치의 첫 적용을 받아 구 신신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제일은행본점 건축계획이 크게 바뀌었다.

이 건물은 당초 옥상을 포함한 조경면적이 대지의 15%, 옥외주차장이 25%로 설계됐었으나 조경면적이 지상 26.3%, 옥상5% 등 모두 31.3%로 늘었고 주차장은 옥외에 15%, 지하에 85%의 비율로 변경됐다.

세계청년건축가作品公募
유네스코서 기념사업으로

세계청년건축가 작품공모가 유네스코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85년도 "세계청년의 해" 기념사업으로 유네스코가 국제건축가연맹(UIA)과 일본항공의 후원으로 전세계 청년건축가를 대상으로 국제설계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국내공모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미래의 주거지(Tomorrow's Habitat)로 지역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환경이 고려된 소도시 혹은 시골 마을의 주거지 모델계획으로 되어 있다.

출품자격은 만35세미만(84년 1월 1일현재)의 대한민국 국민(개인 혹은 단체)이며 출품규격은 700미리×1000미리 2매로 Drawing, Photography, Diagram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영문으로 제출해야하며 모형은 국제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에 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84년 3월15일 오후 5시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부(유네스코회관 7층 서울 중구명동2가 50-16)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국내심사는 주최측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맡고 84년 3월말에 개별통지한다.

시상은 입상5점과 입선 약간으로 입상작가에게는 기념메달과 부상이 수여되며 그밖에는 기념패가 전달된다. 또 입상작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공모전에 출품하며 수상작 10점은 85년 일본 츄쿠바국제만국박람회 기간(3월17일부터 9월 16일) 동안 전시되며 같은해 연말 유네스코 본부(파리) 및 각국 순회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문의처 776-2804~5, 722-4613)

서초동에 "芸術의 展堂"
国内활동의 총 본산구실

강남구 서초동 산130일대 6만1천3백42평이 「예술의 전당」부지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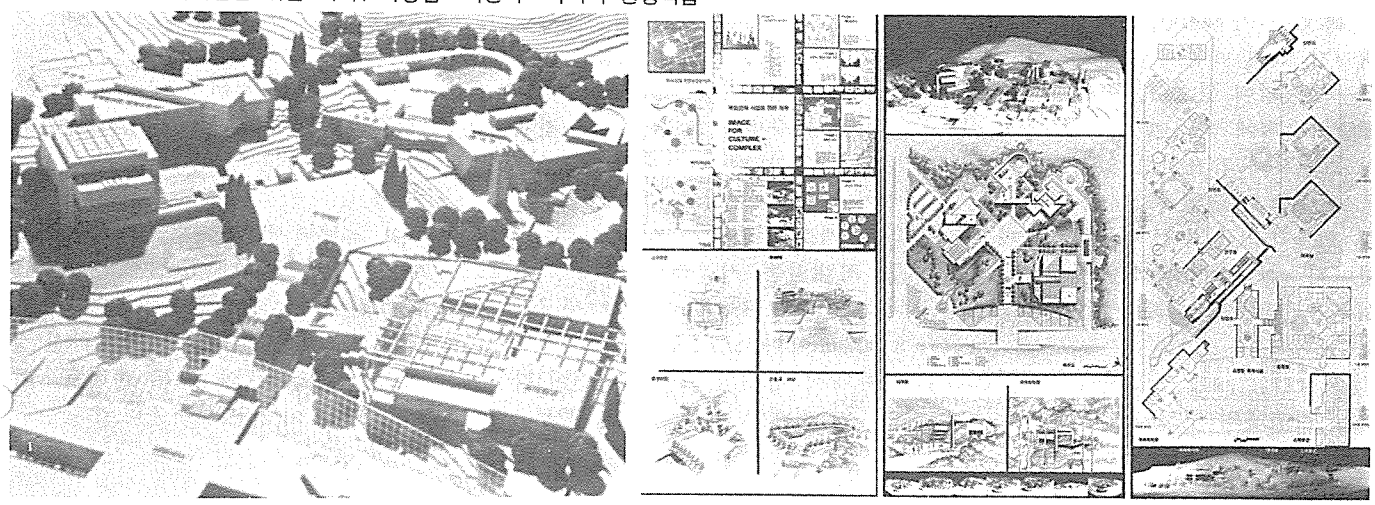
서울시는 당초 문공부의 요청에 따라 강남구 서초동967일대서울시청청사 이전예정지에 예술의 전당을 세우려 했으나 부지규모가 비좁아 새 후보지를 물색해오다가 이날 이 지역을 부지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확정된 부지는 남부순환도로변의 牛眠山기슭이며 주변경관과 교통여건이 좋은 곳이다.

건립될 건물은 문예진흥원이 문공부의 후원아래 내년부터 짓게되며 이 건물이 완공되면 국내예술활동의 총본산구실을 맡게된다.

中央大 建設大学院 신설
내년부터 3개학과 모집

중앙대학교는 건설대학원을 신설, 오는 84년부터 석사 및 연구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첫해에 모집하는 학과는 건설시공관리전공을 비롯 구조전공, 토목구조전공학과 등 3개 학과이고 2학기부터는 건축도시설계학과와 토질및 기초학과 환경 및 설비 전공학과 등 3개 학과가 추가될 예정이다.

大賞 /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계획 / 박항섭 · 이정욱 · 박덕식 공동작품